



쌀 재고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풍년에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화장동에서 농민 김영우(77)씨가 창고에 쌓아둔 쌀을 건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① 쌀은 생명이다

영혼 깃든 우리민족 삶의 원천

국민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0kg대 까지 떨어지는데다 해마다 재고량이 늘면서 쌀값이 폭락하는 등 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쌀은 생명의 원천이자 신물(神物)이었다.

선조들은 쌀을 단순한 곡식으로 여기기 보다는 영혼을 담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다. 새로 태어난 아기와 산모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할 때도 삼신상(아기를 낳은 뒤에 삼신에게 올리는 상)에는 쌀밥과 미역국을 올렸다. 조상들이 밥풀 하나,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것은 쌀을 겨례의 혼이 담긴 신성한 곡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일종의 도령(稻靈)신앙이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추수와 함께 거둔 햅쌀을 '성주단지'에 보관하는 오랜 풍습도 쌀을 신성하게 여기는 전통과 맥이 닿아있다. 성주는 집안 토지의 신이자, 가정의 수호신이었다. 이 성주단지에 있는 햅쌀은 신에게 바치는 제수(祭需)였다. 제삿상에 백설기 떡을 올리는 것은 쌀로 빚은 최초의 순수한 결정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만 쌀은 우리 삶의 원형질이다. 지난 1998년,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발견된 햅씨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1만

햅쌀은 신께 바치던 제수

햅씨는 온 가족의 수호신

재화와 물가·금료의 기준

2500년~1만3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충북대·단국대 등 조사단이 발굴한 햅씨 18종 등은 유전자 분석 결과 오늘날 한반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햅씨의 원형인 자포니카 계통임이 밝혀졌다.

분석결과 이 햅씨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햅씨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 옥점암 동굴 유적의 1만1000년전 것보다도 최소 1500년에서 3000년을 앞섰다.

쌀은 지금처럼 백화점 끼워팔기 상품으로 내몰리는 '상품'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해가 길어지는 2~8월 일급달 동안만 세계를 먹고, 해가 짧아지는 9월에서 1월까지 5개월은 두끼만 먹었다고 한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굶어죽는 사람도 허다했다. 쌀이 생명과 직결되는 위상을 갖게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보니 신부가 혼례를 치른 후 타고가는 가마에도 햅씨가 실렸다. 한 집안 온식구의 생명줄을 지켜나갈 햅씨를 지켜내고 잘 관리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의례였다. 조상들이 집안의 존폐가 햅씨의 관리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풍습이다.

쌀을 신성시한 만큼 금기도 많았다. '쌀을 밟으면 발이 비뚤어진다' '햅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쌀을 씻을 때 흘리면 유산(流産)을 한다' '키질할 때 쌀알을 날리면 남편이 바람난다' 등이다.

쌀을 주식으로 삼았던 우리문화 속에서 '쌀 문화'를 끄는 것 보다는 쌀과 연관없는 문화를 찾아내는 것이 더 쉬운 정도.

마을 공동체 신앙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당산제, 서낭제 등도 모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개인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노동형태인 두레가 탄생했고, 농가 세시풍속도 모두 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 쌀은 우리 민족의 주곡으로 자리잡았으며, 모든 재화와 부를 가능하는 기준이자, 물가를 측정하는 잣대였다. 토지개혁 이전까지만해도 연간 쌀 수확량이 부자의 기준이었다. 천석꾼, 만석꾼이니 하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금료의 기준은 쌀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내 쌀 품종의 역사

현재 국내에서 브랜드쌀로 판매되는 종류는 줄잡아 1200여개. 전남쌀 브랜드만도 250개에 달한다. 국내 쌀의 품종도 200여개를 웃돌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쌀 다품종 시대의 뿌리는 지난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수원에 세워진 권업모범장이 효시다. 이 곳에서는 재래종 수집·분석과 일본 도입 품종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우리 기후·풍토에 맞는 육성품종 개발사업은 지난 1915년에 벼의 인공교배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출발했다. 1932년에는 국내 최초 육성품종인 '남성13호'가 탄생, 일본 품종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국민 누구나 쌀을 먹게된 것은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통일벼 품종이 개발·보급되면서부터다. 통일벼 초기 품종은 1970년 대 후반 재래종인 자포니카

품종과 열대지방 인디카 품종간의 형질을 합한 햅씨였다. 당시 이 쌀은 수확량이 10a(300평)당 513kg으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던 자포니카 계통의 '진흥'보다 30% 수확량이 이상 많았다.

후속 품종인 '밀양23호' '밀양30호' 등이 본격 보급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1975년에는 쌀 총생산량이 3000만섬을 돌파, 쌀 자급생산의 길로 들어선다. 줄주림의 상징이던 '보릿고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벼는 치명적인 도열병에 취약했던 탓에 1992년 '용주벼'를 마지막으로 농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70년대 후반 통일벼 개발로 '보릿고개' 사라져

90년대 이후 소비감소 영향 고품질種 쏟아져

1990년대 우리쌀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종으로 자리매김한다.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밥맛이 뛰어난 친환경·고품질 품종이 무려 54종이나 개발·보급됐다. 10a당 수확량이 550kg에 달하는 품종도 '화동벼' '수라벼' '새추청벼' '신동진벼' 등 12개나 됐다.

이후 국민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돼 쌀 소비가 감소하자 쌀 소비 확대와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종이 본격 개발됐다. '흑진주벼' 등 유색(有色)미, 개량 찬쌀, 라이신 함량이 높은 '연안벼' 등이 잇따라 보급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려대학교가 2011학년도 부터 『일반대학교 (박사과정 설치)』로 전환 새롭게 시작합니다!

간호·보건·복지계열 특성화 대학!
2011학년도 수시모집 / 정시모집(나,다군)

- 2010년 물리치료학과 : 『함정대』 군, 국가시험 전국 수석
- 2010년 간호학과 국가시험 합격율 97%로 최우수
- 경찰행정학과 경찰 특·공채 98명 합격
- (모집인원 : 간호학과 60
- 물리치료학과 72
- 방사선학과 48
- 임상병리학과 46
- 보건행정학과 20
- 작업치료학과 22
- 사회복지학과 110
- 경찰행정학과 65 등 총 583명)



한려대학교
HANLYO UNIVERSITY
www.hanlyo.ac.kr
TEL : (061)760-1119